

임진왜란의 상흔과 외세에 대한 사대부의 인식변화*

: 오희문과 정경운 사례 비교

변원섭**

국문요약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위해(危害)는 지배층인 사대부들도 피할 수 없었는데 사대부들은 한자로 작성한 일기에 고통스러운 전쟁의 기억과 외세에 대한 생각의 편린(片鱗)들을 남겨놓았다. 이 논문에서는 오희문의 일기 「쇄미록」과 정경운의 일기 「고대일록」을 선별하여 두 사람이 겪은 전쟁의 상흔과 외세에 대한 인식변화를 비교하여 살폈다.

두 사람 모두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자식을 잃는 비극적 상황을 체험한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겪은 경험과 처지에 따라 외세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의병으로 활약하면서 전쟁의 피해를 직접 겪은 정경운은 명에 대한 ‘사대’만으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점과 일본에서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며, 피난지를 전전하면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오희문의 명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적대감이 희석되고 단지 전쟁이 빨리 끝나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란다.

주제어: 임진왜란, 일기 자료, 사대부, 전쟁 체험, 외세

*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임진왜란 시기 일기 자료에 나타난 사대부의 전쟁 체험과 평화 인식’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강원대학교 예비군 연대장 / 평화학 박사

I. 서론

16세기 조선이 겪었던 임진왜란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연구 노력의 하나로 필자가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느끼는 사대부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과 이들의 외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모습은 다행스럽게도 한자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대부들이 남겨놓은 일기라는 형식의 기록물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일기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주관적인 기록이어서 이를 객관화·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일기가 단순히 일기 저자 각 개인의 미시적인 삶의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사회적인 요청과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감정 등을 함의(含意)하고 있다고 볼 때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피지배층인 일반 백성들과 지배층인 사대부 간에는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며 백성들 중에는 전쟁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활용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김강식 2007).¹⁾ 하지만, 지배층이었던 사대부 내에서도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음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지배층인 사대부간에도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나아가 그들의 명(明)과 일본(日本)에 대한 인식이 전쟁의 진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두 개 층위로 대상을 나누어 추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출사하지 못하고 고향인 서울을 떠나 피난지를 전전하면서 병과 배고픔을 겪는 ‘민(民)’과 유사한 삶의 궤적을 보인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瑣尾錄)』과 의병으로 참전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삶을 산 정경운(鄭慶雲)의 『고대일록(孤臺日錄)』을 통해 두 사람을 비교하여 살필 것이다.

많은 일기 중 이 두 가지 일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

1) 근왕병을 모으고자 함경도에 온 선조의 첫째 왕자 임해군(臨海君)과 여섯째 왕자 순화군(順和君)을 국경인(鞠景仁)이 잡아서 왜장 카토 키요마사(加藤清正)에게 넘긴 일이 있었다. 『쇄미록』에도 “백성들이 너 나 없이 서로 받으면서 앞드려 목숨을 구걸했고, 개중에는 새로운 상전이 나를 살렸다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民皆爭受 俯伏乞命 或稱 新上典生我云.” 『쇄미록』 <임진남행일록>)

다. 최은주는 임진왜란 일기를 총 55종으로 분류하였는데, 일기가 ‘원본’ 그대로 전해지거나 후손에 의해 필사된 ‘단독 필사본’ 형태로 전승되는 25종, 후손에 의해 일기 양식 그대로 간행된 ‘단독 간행본’ 형태의 2종, 후손들이 선조의 문집을 만들면서 일기를 포함하여 발행한 ‘간행 문집 수록’ 형태의 28종이 있다고 밝혔다(최은주 2020, 25-56). 본 논문에서는 ‘원본’ 또는 ‘단독 필사본’ 형태의 일기 25종을 우선 살폈는데, 이는 ‘단독 간행본’ 형태의 일기는 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내용을 축소하여 간행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간행 문집 수록’ 형태도 전체 문집의 규모에서 일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 많은 부분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5종의 일기 중 임진왜란 시기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자료는 9종²⁾인데, 이 중에서 ‘민’과 ‘반관반민’이라는 층위를 대표할 수 있는 일기가 『쇄미록』, 『고대일록』이었다(최은주 2020, 30-31). 고향인 서울을 떠나 피난하면서 일본군의 침략 경로에서 벗어난 곳에서 거주하여 간접 피해를 본 오희문과 고향인 함양에서 일본군과 명군의 직접 피해를 겪은 정경운 간의 비교를 통해 두 사람의 전쟁 체험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인식의 변화 추이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쇄미록』은 1591년(선조 24) 11월부터 시작하여 1601년(선조 34) 2월까지 9년 3개월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매일의 일상과 전해 들은 전쟁 상황, 조정 소식 등을 기록하고 각 권 끝에는 왕의 교서, 의병들의 격문,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 각종 공문서 등을 수록하고 있다. 1991년에 보물 제1096호로 지정되었다. 오희문은 1539년(중종 34) 7월 25일 출생하여 1613년(광해군 5)에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서울³⁾에 거주 기반을 가진 서울 사족으로 4남 3녀를 두었다. 이중 장남인 윤겸(允謙)이 영의정에 올랐다(신병주 2012, 41-48; 서병패 1992, 80). 아들 덕분에 오희문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정성미 2012, 299-302).

2) 정탁, 『임진기록』 (1592~1599); 유정, 『일기』 (1590~1597); 조응록, 『죽계일기』 (1592~1624); 오희문, 『쇄미록』 (1591~1602); 이탁영, 『정만록』 (1591~1599); 조정희, 『송운일기』 (1577~1612); 이순신, 『난중일기』 (1592~1598); 유철, 『영남적고록』 (1591~1598); 정경운, 『고대일록』 (1592~1609)

3) 오희문은 일기에 서울을 경성(京城), 경(京)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독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대 표기인 ‘서울’로 통일한다. 이 글에서 ‘한양’과 ‘서울’은 같은 장소를 의미한다.

오희문은 임진왜란 발발 전 해인 1591년 11월에 노비 신공(身貢)을 거두고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하여 처남이 현감으로 근무하던 장수 지방에 1592년 4월에 도착하였는데 여기서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듣는다. 장수 지방에서 6개월간 피난 생활을 하고, 홍주(洪州, 지금의 홍성)에서 약 8개월을 거주하다가 1593년 6월 부여군 임천(林川)으로 이사하여 3년 6개월 정도 거주한다. 그 후 장남이 현감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평강으로 이주하여 만 4년을 거주하다가 1601년 2월 서울로 복귀한다. 오희문의 임진왜란 기간 거주지는 상대적으로 전쟁의 피해가 적었던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이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은 오희문의 나이 54세 때이다. 여기서는 황교은 등이 옮기고 (주)사회평론아카데미에서 2018년 발간한 『쇄미록』을 저본으로 하였다.

『고대일록』은 함양 사족인 정경운이 1592년(선조 25) 4월부터 1609년(광해군 원년) 10월까지 18년 동안 쓴 일기이다. 전황과 조정의 동향, 의병 부대에 관한 내용, 명군 동향, 정유재란 시 함양 함락 상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노영구 2007, 26). 정경운은 진양(晉陽) 사람으로 호는 고대(孤臺)⁴⁾이다. 1556년(명종 11) 2월 29일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2세 때 부친이 사망하여 외조부 슬하에서 성장하였으며, 9세 때 외조부가 사망하자 모친과 외조모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13세 때 모친이 사망하여 외조모 밑에서 살았다. 15세 때 외조모까지 사망하자 형과 형수를 부모처럼 의지하며 살았다. 25세에 결혼하였으며, 26세 때 정인홍(鄭仁弘)을 스승으로 만나 공부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함양 지역에서 의병 활동⁵⁾을 전개하였다(김윤우 1992, 143-154). 정경운은 고향 함양에서 주로 거주하였으며 정유재란 시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피난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함양은 일본군과 명군의 이동로 상에 있어 임진왜란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곳이다. 1592년 당시 정경운의 나이는 37세이다. 여기서는 남명학연구원에서

4) 정경운의 출생지인 함양읍 백연리 부근의 위천(渭川)에 있는 ‘소고대(小孤臺)’라는 바위에 “孤臺 晉陽 鄭公慶雲 杖履所(고대 진양 정경운이 머물러 지내던 곳)”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이곳 바위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5) 정조 때 전라 관찰부에서 편찬한 ‘호남절의록 정경운조(湖南節義錄 鄭慶雲條)’에 “초유사 김성일이 공을 소모유사로 삼았다. 이에 힘을 다하여 군사를 모집하고 병곡을 많이 얻었다. 송암(松庵) 김면(金沔)이 공을 소모종사관으로 삼았다. 마침내도 관내에 격문을 전하니 모집에 응한 의병이 수백 명이 되었다.”라고 정경운의 활동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윽기고 태학사에서 2009년 발간한 『역주 고대일록』을 저본으로 하였다.

『쇄미록』은 9년 3개월간(1591.11.27.~1601. 2.27.)의 기록이고, 『고대일록』은 약 18년간(1592. 4.20.~1609.10. 7.)의 기록이다. 전쟁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충실히 살피기 위해 분석 기간은 전쟁 이전인 1592년 1월 1일부터 전쟁 이후인 1601년 2월 27일까지 약 9년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쇄미록』에 대해서는 이미 음식문화, 가장의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미혜 2019, 2020; 차경희 2007; 김성희 2007; 박미혜 2007). 최근에는 정보의 전달 양상, 혼맥과 친족관계, 여성의 삶 등에 대한 추가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경태 2021, 2022; 김연수 2022). 『고대일록』의 경우에도 임진왜란 당시 수령들의 전란 대처, 인물 평가, 전쟁 체험, 함양 사족들의 동향, 명군의 모습, 의병 활동의 실상, 정경운의 시문 등 관련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이선희 2010; 박다현 2016; 설석규 2010; 방기철 2013; 오용원 2010; 정해은 2007; 원창애 2012; 장경남 2015; 한명기 2010; 박병련 2010; 윤호진 2014). 최근에는 정경운의 호남지역에서의 피난 시기를 조명한 연구도 있었다(김종구 2022). 그렇지만 본 연구와 같이 사대부를 두 개 층위로 나누어 그들이 겪은 전쟁 체험을 비교하여 살피고, 명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 전례는 없었다.

II. 상흔; 지난(至難)한 일상과 자식들의 죽음

오희문은 본인과 부인, 모친 등의 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막내딸이 병으로 사망하는 비극을 겪을 뿐 아니라 배고픔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일상을 살았다.

우선 오희문 자신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렸다. 오희문의 치료법은 단순히 땀을 내거나 민간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는 자신의 병구완에만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여타 가족들의 병증은 더욱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표 1〉 오희문 발병 실태

병명(증세)	연도	기록일	기간
하혈	1592	8. 1.~ 8. 3. /12.11.(열흘 넘게 지속)	10일 이상
	1597	12. 6.(보름 동안 지속)	15일 이상
두통, 사지 늘어짐	1593	1.10.~3.30.	45일
학질	1593	7.23.~8. 4.	12일
곽란 (기운 없고, 설사)	1594	5. 1./ 5. 2./ 6. 5./ 6. 6./ 8.28.	5일
감기	159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1. 1.	7일
감기 (식욕 없고 피곤)	1598	2. 5./ 2. 6./ 3.13./ 3.14./ 3.15./ 3.20./ 3.21./ 10.22./ 10.23./ 10.24./ 11. 1./ 11.28.	12일
종기(무릎, 손등)	1598	5.15./ 5.16./ 5.17./ 5.20./5.25./ 5.26./ 5.28./ 9. 8.	8일

註) 1. 치료법이 기재된 병만 발췌하였다.(발병 기간은 일기 전후 맥락으로 판단)

註) 2. 기록된 병명이 있으면 병명을 기록하였고 병명이 없으면 증세를 기록하였다.

오희문의 부인 연안 이씨는 병치레를 많이 하는데, 증세가 다양하고 병을 앓는 기간도 길다. 전체 기록 일수의 7.4%인 224일 치의 일기에 부인의 병을 걱정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곽란·이질·학질·두통·오한·발열·가슴 답답·피부병·복통·종기 등 많은 병을 앓았다. 부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농어·노루고기·청어·소고기·생전복·수박 등 귀한 음식을 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여러 가지 약을 구해 제공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사대부 층에서 금기시되었던 점(占)을 치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한다.

막내딸 단아도 〈표 2〉와 같이 유난히 병치레를 많이 한다. 특별한 애정⁶⁾을 보인 사랑스러운 막내딸이 늘 병에 시달렸으니, 그때마다 오희문의 염려는 매우 컸다.

6) “막내딸 숙단(淑端)은 얼굴이 곱고 깨끗하며 성품이 몹시 단아하여 내 사랑을 독차지했다. 어여쁜 모습이 자나 깨나 눈에 선하니 … (중략) … ‘아름다운 막내딸’이라는 말이 내 마음을 표현한 것이리라”(임진남행일록, 7월 이전 작성한 일기)라고 하고 있으며, 귀한 벼루를 단아가 깨뜨리자, 혼을 내기는커녕 꾸지람을 들을까 봐 걱정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단아를 보고 오히려 “안쓰럽다”라고 한다(계사일록, 10. 19.).

오늘 또 아파서 물골이 누렇게 뜨고 말랐다. 밥도 배불리 먹지 못해서 앓고 있지 않을 때보다 고단함이 배나 심하다고 한다. 차마 볼 수가 없다.(갑오일록, 5. 30.)

머리 가득 종기가 나서 터져 고름이 흐르며 이가 머리에 그득해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 (중략) … 슬프고 불쌍함을 이겨 낼 수 없다.(병신일록, 12. 3.)
 꼭두새벽부터 전에 있던 증세가 다시 생겨나 머리가 아프다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아프다는 소리를 잠시도 그치지 않는다. 참혹함을 차마 볼 수가 없다.(정유일록, 1. 18.)

막내딸의 병 치료를 위해 오희문 부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다. 귀한 약재인 청심환(淸心丸)·소합환(蘇合丸) 등을 구해서 먹이기도 하고, 침(鍼)을 놓기도 했으며, 먹고 싶어 하는 것을 구해 먹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부모의 여러 병구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1596년 9월 20일에 두통·구토·발작·인사불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병에 걸려 4개월 여를 고생하다가 1597년 2월 1일 열다섯 나이로 사망한다.

〈표 2〉 오희문 막내딸 발병 실태

병명(증세)	언급한 날짜	치료법
학질	1594년 19일	먹고 싶어 하는 것 구해줌
	1595년 12일	없음
두통, 구토, 발작, 인사불성, 머리종기	1596년 48일	청심환(淸心丸), 소합환(蘇合丸), 사청환(瀉靑丸), 안신환(安神丸), 달걀노른자, 죽력(竹瀝), 청소(淸蘇), 원미죽(元米粥), 침(鍼), 무당 굶, 독경
	1597년 26일 *1597년 2월 1일 사망	

註) <표 1>와 같다.

사랑하는 막내딸 ‘단아’의 죽음은 전쟁이 개인의 삶을 얼마만큼 피폐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이유진 2021, 246). 막내딸이 사망하자 오희문은 “가장 통탄스러운 점은 객지로 떠도느라 의술과 약물을 모두 쓰지 못하고 오직 하늘의 명만 믿고 사람이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정유일록, 2. 1.)라고 한탄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치료하여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을 죽게 만든 것은 자신을 객지로 떠돌게 한 전쟁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을

을 표출하고 있다.

자신의 병과 부인·자식들의 병 구호를 해야 하는 와중에 굶주림 또한 큰 고통이었다. 16세기 조선 백성들의 배고픔은 평시에도 일상화되어 있었고 전쟁 중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심했지만,⁷⁾ 평시에는 노비 신공도 받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배고픔이 덜 했을 사대부가 전시에 겪는 배고픔은 견디기 힘든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오희문은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구해서 먹는 다.⁸⁾ 그렇지만 이마저도 풍족하게 먹지 못하여 배고픔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요사이 양식이 떨어져서 하는 수 없이 들깻잎을 따다가 국을 끓이고 죽을 쑤어 위아래 사람들이 함께 먹으며 날을 보내고 있다.(계사일록, 6. 7.)

굶주림은 날로 코앞에 닥쳐 가는 곳마다 구차하게 매번 얼굴을 붉혀야 하니, 아무리 탄식한들 어찌하겠는가.(계사일록, 10. 10.)

위아래 사람들이 소나무 속껍질만으로 같이 끼니를 때우면서 긴긴날을 보내고 있다 … (중략) … 아이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니 차마 볼 수가 없다.(갑오 일록, 3. 1.)

떠들며 곤궁하게 지냄이 몹시 심하여 어쩔 수 없이 친구나 아는 이에게 음식을 빌어먹었다. 그러나 이르는 곳에 곤욕이 적지 않아 편안히 앉아서 굶는 것만 못하다.(을미일록, 4. 11.)

7) 《선조실록》, 선조 27년 3월 20일조, “최홍원이 아뢰기를, 굶주린 백성들이 요즘 들어 더욱 많이 죽고 있는데 그 시체의 살점을 모두 베어 먹어버리므로 단지 백골만 남아 성 밖에 쌓인 것이 성과 높이가 같습니다 하고, 류성룡이 아뢰기를, 비단 죽은 사람의 살점만 먹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서로 잡아먹는데 포도군(捕盜軍)이 적어서 제대로 금지하지를 못합니다 하고, 이덕형이 아뢰기를, 부자 형제도 서로 잡아먹고 있으며 양주의 백성은 서로 뭉쳐 도적이 되어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興源曰: 飢民死亡 近來尤多 盡割食其肉 只是白骨 而積于城外 高與城齊矣 成龍曰: 非但食其死人之肉 生者亦相殺食 而捕盜軍少 不能禁戢德馨曰: 父子兄弟 亦相殺食 而楊州民 相聚爲盜 捉人食之).”

8) 인용문 외에도 1593년 (5.30./9.17./10.3./10.22./윤11.20.), 1594년(2.18./2.23./2.24./3.4./3.23./3.30./ 4.10./6.1./6.26. /9.1.) 등의 기록도 참조할 것.

배고픔으로 늘 어려움을 겪던 오히문은 큰딸이 함열 지역의 현감 신응구와 혼인한 1594년(선조 27) 8월 이후 딸과 사위로부터 식량과 부식을 부조⁹⁾받아 비교적 배고픔이 덜한 시기를 지내기도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 근본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박미해 2008, 155-158). 더구나 사위가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아예 장남 오윤겸이 현감¹⁰⁾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평강으로 1597년 2월 이사하여 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한다.

그렇지만 아들의 도움만 바라지 않고 땅을 빌려 경작하고, 누에¹¹⁾를 치고, 양봉¹²⁾을 하는 등 경제 활동¹³⁾을 하면서 배고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난해에 우리 집에서 경작해서 수확한 곡식은 … (중략) … 도합 46섬 남짓인데 … (중략) … 올해 농사는 조금도 느슨해서는 안 되고 기필코 많이 경작한 뒤에야 잘못되는 근심을 면할 수 있을 텐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무술일록, 3. 1.)

올해 우리 집에서 경작한 밭에서 나온 수량은 … (중략) … 모두 합치면 87섬 14말 5되이다 … (중략) … 경작해서 난 것이 거의 90섬이 되고 또 생각지 않게 얻은 물건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넉넉지 못함을 걱정했다 … (중략) … 우리 집의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기해일록, 12. 30.)

-
- 9) 오히문은 사위와 딸로부터 약 2년간 미곡 24여 석, 벼 60여 석, 보리 및 잡쌀 10여 석, 반찬, 떡, 특산물 등 곡식과 부식을 지원받았다.
- 10) 오윤겸은 1595년 7월 27일 평강현감에 임명되었다. 『쇄미록』 <을미일록, 8. 4.>
- 11) “올해 누에를 쳐서 딴 온 집안의 고치가 60말이다.”(기해일록, 윤 4.19.)라는 기록이 보인다.
- 12) “저녁에 꿀을 땀다. 7통의 꿀이 5말 6되이고, 밀랍은 1근 13량이다.”(기해일록, 9.12.) : “약과를 만들려고 먼저 꿀 1통을 꺼냈더니, 1말 5되이다.”(경자일록, 9. 7.); “저녁에 꿀 2통을 꺼냈더니 겨우 1말 9되뿐이고, 밀랍은 2근이다.”(경자일록, 9.15.); “금년에 6통을 다 채취했는데 꿀은 겨우 5말이다.”(경자일록, 9.22.) 라는 기록이 보인다.
- 13) 오히문은 평강에서의 거주기간 이외의 피난 시기에도 다양한 상행위를 하는데 “춘이에게 정미 1말 2되와 정목 1필을 지니게 하고 서천과 비인 등에 보내서 소금으로 바퀴 보리를 사 오게 했다.”(갑오일록, 5. 7.)라고 적고 “여름을 날 밀천을 이때 마련하지 못하면 곤궁하고 배고픈 근심이 지난봄보다 더욱 심할 것이다. 평생의 타고 난 분수가 곤궁하여 조그만 이익이라도 바라면 일마다 틀어져서 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갑오일록, 5.10.)라고 한탄한다. 물물교환과 반동(反同; 짝 곳의 물건을 사서 비싼 곳에서 팔아 이윤을 남기던 일)을 통해 곤궁함을 벗어나려 한 사례는 일기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올해 지은 농사의 소출은 … (중략) … 모두 29섬 12말 7되이다. 농사지는 것이 너무 적어서 소출이 이와 같으니, 금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경자일록, 12. 30.)

사대부임에도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여 배고픔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오희문의 배고픔은 개인적인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과 가뭄·홍수 등 환경적인 문제, 농업기술의 부족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희문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산으로 피신하여 86일 동안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을 겪었고, 하산한 이후에도 전쟁 기간 내내 ‘배고픔’을 겪는다. 큰딸과 큰아들의 도움은 일시적이어서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평시라면 노비들의 신공을 받고, 주변의 도움으로 겪지 않아도 되었을 ‘배고픔’을 겪으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병마와도 싸워야 했으며 사랑하는 막내딸의 죽음과도 맞닥뜨려야 했다.

이와 같이 출사하지 못한 사대부 오희문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피난지를 전전하면서 전쟁 기간 내내 배고픔과 병마와 싸우면서 또 딸의 죽음이라는 혹독한 경험을 하는 매우 지난(至難)한 일상을 살았다.

오희문과 유사하게 정경운도 그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여러 이유로 가족들이 사망하는 일을 여러 번 겪는다. 정경운 자신은 1593년 2월 25일에 전염병에 걸려서 그해 4월 11일까지 47일간 바깥출입을 못 하고 누워 있었다. 그의 증세는 “온몸이 차갑고 손발이 미친 듯이 떨리며, 이가 부딪히는 소리는 천둥소리와 같아서, 마치 극한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같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계사, 3. 4.). 정경운 자신이 병을 앓고 있던 상황에서 부인·큰딸·어린 아들도 아팠다. 심지어 1593년 3월 28에 태어난 아들이 태어난 지 10일 만인 4월 7일에 사망한다. 자신이 바깥출입을 못 할 정도로 아파 누워있는데 아들이 태어난 지 10일 만에 죽었으니, 정경운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였을 것이다.

이것으로 정경운의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1593년 5월에는 전염병에 걸려 막내딸이 요절하고, 1594년 3월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태중에서 죽기도 한다. 수많은 죽음을 보고 겪어서인지 1596년에 아들이 태어났어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다.

모시에 아들 주복이 태어났다. 모양새가 허약하여 울음소리조차 없다. 나이 40에 아들을 두었는데 오히려 튼튼하지 못하니, 가여운 생각이 어떠하겠는가.(병신, 4. 25.)¹⁴⁾

그렇지만, 아들 주복이 죽지 않고 돌잔치를 하고 자신의 소망대로 책과 붓을 골라잡자 기뻐하지만(정유, 4. 25.), 태어난 지 2년 만인 1598년 6월에 죽는다.

내가 사십을 넘겨 겨우 아들 하나를 두었다. 결국 그의 요절함을 보니, 운명의 기박(奇薄)함이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난리 통에 옷과 음식을 주지 못했다. 배를 굶기고, 옷을 입히지 못하여 병을 얻어 죽게 했으니, 내가 차마 너를 묻지 못하겠다 … (중략) … 묻은 곳에 가서 밥을 떠 놓고서 한 번 곡할 따름이었으니, 참혹하구나.(무술, 6. 27.)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으로 병을 얻어 죽은 아들의 주검 앞에서 곡해야 하는 정경운의 고통은 참혹함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특히, 늦은 나이에 얻었고 돌잡이에서 책과 붓을 골라 출사를 기대하게 했던 아들 주복의 죽음은 다른 자식들의 죽음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사랑하는 막내 딸의 사망을 바라보는 오희문의 아픔과 비견되는 아픔이었다.

아들의 죽음이 더 비통했던 것은 전 해인 1597년(정유년)에 큰딸 ‘정아(貞兒)’가 능욕당할 상황에서 저항하다가 일본군에 의해 목이 잘려 살해되는 비극을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산에서 정아의 시신을 찾았다. 목이 반 이상 잘린 채로 바위 사이에 떨어져 있었는데, 갖고 있던 패도와 손이 모두 평소와 같았다 … (중략) … 흥적을 만나서는 우뚝 서서 겁 없이 적노(賊奴)를 욕하고 꾸짖으며 목숨을 버려 절개를 온전히 하였다. 곧도다. 내 딸이여,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구나. 오희라. 네가 삶을 버리고 의를 택했으니, 참으로 잘한 일이구나.(정유, 8. 21.)

절개를 지켜냈으므로 ‘부끄럽지 않은 죽음’이라고 애써 담담히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만, 일본군에 의해 목이 잘린 딸의 주검을 본 정경운의 고통은

14) 남명학연구원에서 옮기고 태학사에서 2009년 발간한 『역주 고대일록 上,下』 번역을 따랐다. 앞으로의 인용도 이와 같다.

매우 큰 것이었다.

1593년 3월에 태어난 아들이 10일 만에 죽고, 1593년 5월에는 전염병에 걸려 막내딸이 요절하고, 1594년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낙태하는 아픔도 겪는다. 1597년에는 큰딸이 능욕하려는 일본군에게 저항하다가 목이 잘려 살해되며, 1598년에는 출사의 희망을 갖게 했던 아들이 태어난 지 2년 만에 죽었다. 연이은 자식들의 죽음으로 인해 정경운은 말 그대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다.

정경운은 고향인 함양에서는 지방 사족으로서 굶주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597년에 고향을 떠나 전라도 지역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는 시장에서 구걸을 하기도 했으며(무술, 4. 10.), 장사¹⁵⁾를 하기도 하면서 배고픔을 이겨 내려 노력하였다(김종구 2022).

이처럼 오희문과 정경운은 모두 지배층인 사대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기간중 배고픔, 병, 자식들의 죽음 등으로 매우 지난한 일상을 살았다. 이들의 고통은 평시에는 겪지 않았거나 미약한 수준에서 스쳐 지나갔을 어려움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그 고통의 크기는 증폭되어 다가왔을 것이다. 자신의 본거지인 서울을 떠나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피난 생활을 했던 오희문의 배고픔은 자신의 본거지인 함양에서 생활했던 정경운에 비해 더 혹독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정경운 역시 전라도로 피난하였을 시기에는 구걸해야 할 정도로 힘든 일상을 살았다.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더 큰 고통은 자식들의 죽음이었을 것이다. 막내딸의 죽음을 바라봐야 했던 오희문의 고통도 큰 것이었지만, 연이은 자식들의 죽음과 함께 일본군에 의해 목이 잘려 죽은 자식을 바라본 정경운은 더 큰 단장지애(斷腸之哀)의 슬픔을 겪는다. 두 사람이 전쟁 중에 겪은 상흔은 누구의 고통이 더 큰 것이었나를 구별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15) “소금을 팔고자 했으니, 그 힘듦이 어떠했겠는가.”(무술, 7. 19.) : “함열장에 가서 배 반 필을 팔았다.”(무술, 7. 28.) : “임피장에 가서 나무를 팔았다.”(무술, 9. 30.) 라는 기록이 있다.

Ⅲ. 외세에 대한 인식변화

1. 오희문; 명군에 대한 양가 감정과 일본에 대한 ‘책임 묻기’의 포기

명나라 군대에 대하여 오희문은 비판과 긍정의 양가적인 감정을 표출한다(한명기 2015). 들려오는 명나라 병사들의 약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의 직접 피해가 없어서인지 비교적 차분하게 적고 있다.

명나라 군사 가운데 전라도로 내려간 자들이 길가 민가에서 끝도 없이 재물을 약탈하여 마치 적에게 봉변을 당한 것 같다고 한다.(계사일록, 7. 8.)

명나라 병사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소주와 꿀, 병아리 등의 물건을 찾는 일이 많고,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큰 몽둥이로 마구 매질하며 고을 수령까지 모욕했다. 그들이 가는 곳의 관원은 맞이하고 보내는 근심이 있을 뿐 아니라 이처럼 난리가 벌어지지 않는 날이 없으니,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갑오일록, 6. 4.)

이처럼 명나라 군대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이 명나라 군대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듯이 “송대빈, 낙상지 두 장수의 군사들은 털끝 하나도 범하지 않고 호령이 엄숙하여 지나는 곳이 편안했다. 매우 가상하다(계사일록, 7. 8.).”라고 변호한다. 이처럼 오희문은 일방적으로 명나라 군사를 매도하거나 칭송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나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전해 들은 명나라군의 횡포를 외면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명나라군의 모습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양가적 감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대주의적 가치관을 버릴 수도 없고 현실에서 들려오는 명군의 횡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양가적 입장은 전쟁 기간 내내 지속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군을 바라보는 오희문의 생각은 해가 지나면서 바뀐다. 전쟁 초기에는 일본군을 ‘흉적(凶賊)’으로 지칭하며 섬멸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징치(懲治)하지 못하는 조정의 관리들과 장수들에 대한 울분을 토하고, 일본과 화친하여 전쟁을 끝내려고 시도하는 명나라에 대해서는 원망의 마음도 갖고 있었다.

홍적은 섬멸하지 못했고 장수와 정승 가운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계사일록, 1. 1.)

홍악한 왜적들이 아직도 변방을 점거하여 제멋대로 출입하면서 민가를 분탕질 하는데, 명나라의 장수는 우리가 소탕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더욱 개탄스러운 일이다.(갑오일록, 5. 5.)

그러다가 전쟁 3년 차인 1594년(갑오년)과 4년 차인 1595년(을미년)에 발생한 지진을 ‘하늘의 변고’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더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다.

어두울 무렵 지진이 났는데 마치 천둥소리 같았다. 초사흘에 세 번이나 지진이 나고, 열흘도 안 지나서 지금 또 지진이 났다. 진실로 근고(近古)에 없던 큰 변고이다.(갑오일록, 6. 9.)

저녁에 북쪽에서 남쪽까지 지진이 났다. 소리가 천둥 같았고 집이 흔들리다가 잠시 후에 그쳤다. 하늘의 변고가 이와 같으니, 앞으로 어떤 재앙이 있을는지 모르겠다.(을미일록, 2. 9.)

이처럼 자연 현상인 지진조차 두려워하며 잠시 소강상태이던 전쟁이 어찌 될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다가 전쟁 5년 차인 1596년(병신년)에 들어서면서는 자기 죽음을 걱정하게 되고 운명을 하늘에 맡기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다.

변방의 상황이 근래 더욱 좋지 않으니, 결말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어 밤낮으로 가슴 졸이기를 금할 수 없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집은 종도 없고 말도 없으며 또 갈 곳도 없으니, 반드시 구렁에 쓰러져 죽으리라.(병신일록, 1. 22.)

그러다가 1597년(정유년) 전쟁이 6년 차로 접어들고 막내딸 단아가 그해 2월 1일 병으로 사망한 이후에는 전쟁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하면서 하늘을 원망한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노모를 모시고 병든 아내를 데리고서 위아래가 모두 속옷도 없이 깊은 산골짜기로 피해 들어가 반드시 얼고 굶주리게 될 터이니, 언

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 … (중략) … 못 믿을 것이 하늘이니 크게 탄식한
들 어찌하겠는가.(정유일록, 8. 23.)

오희문은 전쟁이 계속되자 전쟁 초기와는 달리 일본군에 대한 징치(懲治)
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가족에게 닥쳐올 곤경을 여하히 극복할 것인가를 더
염려하고 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자 ‘나라의 경사’라고 기뻐한다.

왜적이 도망쳐서 바다를 건너가 버렸다고 한다 … (중략) … 한 나라의 경사가
어떠하겠는가.(무술일록, 12. 3.)

이처럼 오희문은 명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
었으며 이러한 감정은 전쟁 기간 내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일본
군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섬멸의 대상으로 보다가 후반기로 가면서 전쟁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하고 막내딸 사망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빨리
종결되길 희망한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자, 일본군 죄상에 대한 언급 없이
‘나라의 경사’라고 기뻐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외세에 대한 이와 같은 오희문의 태도는 직접적인 전쟁의 현상이 아닌 곳
에 거주하여 명군과 일본군에 의해 자신과 가족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아서 피해의식과 적대감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
쟁의 장기화로 인해 자기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일본군에 대한 ‘책임 묻
기’라는 명분보다는 전쟁 전의 평온했던 일상으로 빨리 되돌아가고 싶은 인
간적 소망이 더 컸기 때문일 것이다.

2. 정경운; 사대에서 자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정경운의 명나라와 일본에 대한 인식은 극적으로 교차하는 변화를 보인
다. 즉, 명나라에 대한 인식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완전
부정에서 일부 긍정의 방향으로 변화한다. 정경운은 전쟁 초기에는 명나라를
‘상국(上國)’으로 명나라 병사를 ‘천병(天兵)’으로 인식하였다.¹⁶⁾ 그래서인지

16) 『고대일록』 <제사, 10.11.>, “명나라 장병들이 낙동강을 건널 때, 낚은 배가 물에
뒤집어져 명나라 사람 30명과 우리나라 사람 3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 명나라 사람
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구하려다 익사하고 말았으니 슬픈 일이다(天兵將渡洛江之際

명 황제와 장수들에 대해 칭송하는 내용이 1593년까지는 자주 등장한다.

황제가 강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움을 독전하는 천사(天使)를 보내어, 군사들을 재촉하여 왜를 정벌하게 하고 … (중략) … 성스러운 천자가 작은 나라에 베푸는 은혜가 지극하구나.(계사, 8. 24.)

명나라 장수 총병 척금은 … (중략) … 무리를 다스림에 인자하고 분명하여 추호도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산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청덕비를 세워 주기도 했다.(계사, 윤11. 4.)

명나라 황제를 성스럽다고 칭송하고, 명나라 장수는 병사들을 잘 통솔하여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칭찬한다. 그런데, 이런 초기의 긍정적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정적으로 바뀐다. 이는 자신의 고향인 함양을 거쳐 이동하고 머물던 명나라 장수들의 행태를 직접 겪으면서 느끼게 된 것이다(이선희 2010, 98).

명나라 장수가 함부로 위세를 부리며 난동을 일으켜 백성들을 휘갈기고 때리니, 금수와 다를 바 없었다.(을미, 5. 8.)

왕지휘가 성주를 끌고 가서 수없이 구타하였다. 위엄을 함부로 부리는 것이 사나운 호랑이보다 더하였다.(병신, 3. 14.)

이러한 부정적 평가들은 명나라 병사를 대하는 자세에서도 드러난다. 명나라 참전 초기에는 자신의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명군을 잘 먹이려고 노력한다.

왕의 교서가 군에 도착했다. 사민들에게 한 되 또는 한 말의 곡식이라도 내어서, 명나라 군사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라고 권하는 내용이다. 만분의 일이라도 도울 방도가 없으니 속상하구나! (계사, 2. 16.)

명군을 도울 길이 없어 속상해하던 정경운은 명군에 의한 민폐를 직접 겪

朽般翻水 唐人三十 我國人三名溺死 上國之人來救我國而來未兌溺死 哀哉).” (밀줄 필자)

고 나서는 그들의 행태에 실망하면서 매우 비판적으로 기록¹⁷⁾한다.

인가를 뒤져 하찮은 물건까지도 남기지를 앓았고, 우마를 풀어놓아 곡식을 모두 먹어버려서 피해를 보상할 수 없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계사, 7. 9.)

명나라 군대가 굶어모으는 피해가 왜노와 다를 바가 없다.(계사, 7. 14.)

명나라 군대를 만났는데 내가 탄 말을 빼앗아 가버렸다.(계사, 11. 17.)

명나라 병사 다섯 명이 또 우리 집에 들어와 병아리를 모두 죽였다. 또한, 곡물을 빼앗고 술과 고기를 내놓으라고 화를 내는데, 나무와 돌을 다루듯이 마음대로 때렸다.(을미, 11. 5.)

명나라 군사들로 인해 자신이 직접 피해를 겪었고 일반 백성들의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하자 명나라 군대도 일본군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한다(한명기 2017). 명군을 직접 겪어 보기 전에는 그들을 하늘이 보낸 군대로 여겼지만 직접 그 피해를 겪고 나서는 침략국인 일본과 같다고 적대감을 드러낸다. 긍정적인 인식에서 부정적 인식으로 급격히 변화한 것이다.

‘사대’를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조선의 사대부가 명나라 군대의 횡포를 직접 경험하면서 힘없는 나라의 한계를 느끼고 ‘자주’ 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일본군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전쟁 초기에 일본군을 개(犬)·돼지(豕)·구렁이(蛇)라고 칭하면서¹⁸⁾ 완전히 적대적으로만 일본을 인식하였던 정경운은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의 제도 중 좋은 것은 배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오히려 간첩을 쓰지 않는 조선의 게으른 자세를 비판한다.

17) 명군에 의한 피해 기록은 1593년(7.11./7.15./8.3./9.27./11.28.), 1595년(10.24./10.29./11.3.), 1596년(7.2.), 1597년(2.24.) 일기에도 많이 보인다.

18) “만약 이 칙문으로 인해 개(犬)가 양(羊)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이른바 한 자짜리 종이가 능히 백만의 군사를 물리친다고 할 만하다.”(고대일록, 계사, 1. 10.); “큰 돼지(封豕)와 긴 구렁이(長蛇) 같이 악한 무리들이 도처에 가득하여 우리 강토를 점령하고 우리 풍속을 더럽힌 지 한 해가 지나도 그치지 않으며 그들의 간특한 짓을 일삼는 행태가 더욱 심하다.”(고대일록, 계사, 4. 13.)

왜국은 토지를 모두 공전(公田)으로 삼아, 사람들로 하여금 밭 갈고 씨 뿌리게 하여 반으로 나누어 군량과 공용의 일에 쓴다. 나라 안의 장정을 선발하여 군사로 삼아 나날이 훈련하고, 또 처자의 생계비도 지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병사가 되는 것을 즐겁게 여기게 하였다. 그러므로 싸움에 용감하고 무술에 뛰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군사는 병역에 종사한다.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킨 자가 이미 오래되었어도 나라에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없어, 농산물은 풍족하고 사람들은 부유한 것이다.(병신, 12. 13.)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아서 간첩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저 왜적들은 밤낮으로 우리나라를 도모하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가슴 아프도다.(정유, 4. 18.)

전쟁 5~6년 차에 일본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으며 좋은 제도는 배워서 조선에도 적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적고 있다. 일본이 병사들에게 급료를 지급¹⁹⁾해서 복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전투기술도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이 풍족하고 부유하다고 하면서 이는 ‘나라에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없기 때문’으로 진단한다(변원섭 2020, 21-23). 심지어는 우리가 간첩을 쓰지 않는 것은 게으르고 겁이 많아서라고 자기반성적 자세를 내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에 대한 일부 긍정적 인식의 표출을 일본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추종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일본의 장점을 배워 조선을 강하게 만들고자 한 자강 의지의 표출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긍정 인식은 큰딸이 일본군에 의해 목이 잘려 사망하기 이전의 인식이어서 이후에 그의 인식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큰딸이 살해된 이후의 일기에도 그의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없는 사실로 볼 때 정경운의 일본 제도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긍정 인식은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 대표적인 북학파 인사인 박제가가 18세기 후반에 저술한 『북학의』에서 ‘군역을 수행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으므로 장정들이 군역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부에 올라가 있는 숫자도 맞지 않고 동원되어 훈련하여도 제대로 싸울 인원은 20~30%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군대로는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병사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어 정예병을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임진왜란 이후 200여 년이 지나서도 병사들의 급료는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명나라군에 대한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고, 일본군에 대한 무조건적 적대감에서 일본 제도의 일정 부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는 ‘사대’만 해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일본을 알잡아 보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을 자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명나라의 횡포를 겪으면서 내 나라의 힘이 있어야 백성을 지킬 수 있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사대’에서 ‘자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고, 일본에 대해서는 강한 ‘적대 의식’을 버리고 ‘장점 배우기’로의 인식 전환도 이루어졌다.

IV. 결 론

전쟁 시기에는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특히, 사대부들은 평시에는 겪지 않았을 병과 배고픔(가난)이라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미개국으로 치부했던 침략국 일본과 사대로 우러러보았던 지원국 명나라를 직접 겪으면서 그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 정신적 혼란도 감내해야 했다. 전쟁을 겪으면서 명나라의 부정적인 측면에 눈뜨고 일본의 장점을 새로이 발견하게 되면서 기존의 자기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바꾸게 된다.

오희문과 정경운은 두 사람 모두 혹독한 전쟁을 체험하고 전쟁의 상흔을 깊게 느낀다. 오희문은 서울에 기반을 둔 서울 사족으로서 노비들의 신공을 거두고 지방에 사는 친·인척들을 방문하는 여행길에 임진왜란을 만나 홍주, 임천, 평강 등 지방을 전전하면서 피난 생활을 한다. 시집간 큰딸과 평강 현감으로 근무하던 큰아들의 부조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부조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오희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배고픔’을 겪는다. 배고픔만이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딸 등도 항시 고통받는다. 결정적으로 오희문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막내딸의 죽음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치료하여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을 피난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서 죽게 만든 것은 오로지 전쟁 때문이었음을 원망한다.

정경운의 고통도 오희문이 겪는 고통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배고픔은

덜 겪는다. 함양의 재지사족으로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1597년 정유재란 시기에 전라도 지방으로 피난할 때는 시장에서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정경운은 배고픔보다는 자식을 잃는 고통을 많이 겪는다. 1593년에 질병으로 인해 막내딸을 잃었고, 아들이 태어난 지 10일 만에 죽었다. 1594년에는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가 태중에서 죽었으며, 1597년에는 일본군에 의해 큰 딸이 목이 잘려 살해되는 아픔을 겪었고 1598년에는 늦게 얻은 아들 주복을 잃었다. 정경운은 말 그대로 ‘단장지에(斷腸之哀)’의 아픔을 겪는다.

두 사람 모두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희문은 단순히 병마에 의해 딸 한 명을 잃은 것이었고, 정경운은 병마에 의해 여러 자식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일본군에 의해 딸이 살해되는 피해를 당하였다. 배고픔과 가난도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겪은 것이었다. 병과 가난 그리고 자식의 죽음이라는 체험은 두 사람 모두 공통으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이러한 전쟁의 상흔 속에서 두 사람은 외세인 명과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다. 오희문은 명나라군의 횡포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기가 바로 선 명나라군 부대는 칭송하는데 오희문에게 명나라군은 고마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상서롭지 못한 대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긍·부정이 혼재된 양가적 인식은 전쟁 내내 변하지 않는다. 일본군에 대해서는 전쟁 초기에는 ‘흉적(凶賊)’으로 지칭하며 섬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대감이 희석되고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되기만을 바란다. 이는 오희문의 거주지가 일본군의 침해권에서 벗어나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경운의 명나라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은 초기 인식과는 거의 반대로 움직인다. 명나라군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일본군은 완전 부정에서 일부 긍정의 방향이다. 정경운은 전쟁 초기에 명나라를 ‘상국(上國)’으로 명나라 병사를 ‘천병(天兵)’으로 인식하였지만, 명나라군의 횡포를 직접 겪은 이후에는 명나라군에 대한 평가가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심지어는 침략국인 일본과 같다는 생각에까지 이른다. 일본군에 대해서는 초기에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의 제도 중 좋은 것은 배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두 사대부에게 임진왜란이 남긴 상흔은 유사하였으나 명나라와 일본에 대

한 인식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역할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명군과 일본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던 오희문은 명군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갖고 이를 전쟁 내내 계속 유지하지만, 일본군에 대해서는 적대감 대신 전쟁이 빨리 끝나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구한다. 이에 반해 명군과 일본군의 침해에 직접 노출되었던 정경운은 명나라에 대한 막연한 사대도,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도 옳지 않다는 인식으로 변화한다. 정경운의 명나라에 대한 비판과 배척은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자각이며,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의 변화는 일본을 미개국으로 치부하고 허울 좋은 자만감에 빠져있던 조선 사대부의 자책이다.

변원섭은 육군사관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대령으로 전역한 후 강원대학교에서 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역 시절 평화에 대한 관심으로 평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부국강병 노력중 '강병육성' 측면에 천착하여 지속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오희문. 2018. 『쇄미록1~8』, 황교은 등 옮김, (주)사회평론아카데미.
- 정경운. 2009. 『역주 고대일록 上.下』, 남명학연구원 옮김, 태학사.
- 김강식. 2007.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 백성들은 왜 조선 왕자를 일본군에 넘겼나?” 『내일을 여는 역사』 29호.
- 김경태. 2021. “쇄미록에 나타난 임진왜란 관련 정보의 전달 양상.” 『역사와 담론』 99호.
- 김경태. 2022. “임진전쟁과 여성의 삶 -쇄미록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8호.
- 김미혜. 2019. “조선중기 두류 수급 현황과 콩 음식문화 고찰-오희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34권 3호.
- 김미혜. 2020. “쇄미록에 기록된 16세기 사대부가 절사와 세시음식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35권 1호.
- 김성희. 2000.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가장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4호.
- 김연수. 2022.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혼맥과 친족관계.” 『한국민속학』 75호.
- 김윤우. 1992. “함양 의병유사 정경운과 고대일록.” 『남명학연구』 2호.
- 김종구. 2022. “정유재란기 정경운의 호남체험과 그 의미.” 『영남학』 80호.
- 노영구. 2007. “전쟁과 일상 : 고대일록을 통한 임진왜란 이해.” 『역사와 현실』 64호.
- 박다현. 2016. “고대일록에 나타난 정경운의 인물평가.” 『역사교육논집』 59호.
- 박미해. 2007. “조선중기 수령의 가족부양으로 본 의 역할과 家의 범위.” 『사회와 역사』 75호.
- 박미해. 2008. “조선중기 예송·증송·별송으로의 처가 부양 : 오희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2권 2호.
- 박병련. 2010. “고대일록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상황과 의병활동의 실상.” 『남명학』 15호.
- 방기철. 2013. “정경운의 전쟁체험과 일본 인식.” 『한국사상과 문화』 68호.

- 변원섭. 2020. “북학의 병론으로 본 박제가의 강병육성책 연구.” 『군사연구』 149호.
- 서병패. 1992. “쇄미록 해제.” 『서지학보』 8호.
- 설석규. 2010. “정경운의 현실인식과 고대일록의 성격.” 『남명학』 15호.
- 신병주. 2012. “16세기 일기자료 쇄미록 연구 : 저자 오희문의 피난기 생활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0호.
- 오용원. 2010. “16세기 후반 함양사족의 전쟁체험과 현실극복.” 『남명학』 15호.
- 원창애. 2012. “고대일록을 통해 본 함양 사족층의 동향.” 『남명학 연구』 33호.
- 윤호진. 2014. “고대 정경운의 시문과 작품세계.” 『남명학 연구』 41호.
- 이선희. 2010. “임진왜란 시기 함양 수령의 전란대처 : 고대일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10호.
- 이유진. 2021. “쇄미록에 투영된 임진란에 대한 책무의식과 감정의 파고.” 『Journal of Korean Cultuer(JKC)』 54호.
- 장경남. 2015.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전란 극복의 한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7호.
- 정성미. 2012. “오윤겸의 생애와 정치활동.” 『역사와 담론』 61호.
- 정해은. 2007. “임진왜란 시기 경상도 사족의 전쟁체험.” 『역사와 현실』 64호.
- 차경희. 2007. “쇄미록을 통해 본 16세기 동물성 식품의 소비 현황.” 『한국 식품조리과학회지』 제23권 5호.
- 최은주. 2020. “조선시대 임진왜란 일기자료의 현황과 傳存양상.” 『한국민족 문화』 77호.
- 한명기. 2010. “고대일록에 나타난 명군의 모습.” 『남명학』 15호.
- 한명기. 2015. “임진왜란 시기 명군지휘부의 조선에 대한 요구와 간섭.” 『한국학 연구』 36호.
- 한명기. 2017. “임진왜란 시기 명군 도망병 문제에 대한 일고.” 『한국학 연구』 44호.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Abstract

The Scars of the Imjin War and the Changing Perceptions of Foreign Powers among Joseon Intellectuals : A Comparative Study of Oh Hee-moon and Jeong Gyeong-un

Byun, Won-seob^{*}

The devastating impact of the Imjin War (壬辰倭亂) did not spare the ruling class of Joseon, including its intellectual elite (士大夫). These scholars left behind diary record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that contain fragments of their painful wartime experiences and reflections on foreign powers.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how two such intellectuals, Oh Hee-moon and Jeong Gyeong-un, recorded the scars of war and the evolution of their perceptions of foreign powers in their respective diaries, *Swaemirok* (瑣尾錄) and *Godaeilrok* (孤臺日錄). Both individuals experienced severe hardship, including hunger and the tragic loss of their children. However, their views on foreign powers diverged depending on their respective circumstances. Jeong Gyeong-un, who served as a militia member and experienced the war firsthand, came to recognize that blind loyalty to the Ming dynasty was insufficient to sustain the country. He also acknowledged the need to learn from Japan. In contrast, Oh Hee-moon, who suffered more indirectly while moving between refugee camps, showed little change in his perception of the Ming dynasty but gradually became less hostile toward Japan. Ultimately, his deepest wish was simply for the war to end so he could return to everyday life.

Key Words: Imjin War (壬辰倭亂), diary records (日記資料), Joseon intellectuals (士大夫), war experience (戰爭體驗), foreign powers (外勢)

논문투고일: 2025. 03. 26.

논문심사일: 2025. 04. 17.

게재확정일: 2025. 05. 06.

^{*} Reserve Forces Regimental Commander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Ph.D. in Peace Studies